

노후준비에 대한 서울가구 의견조사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양승희 연구원 sunsh@si.re.kr

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I. 들어가며

II 설문조사를 통해 본 노후준비 특성

III. 결론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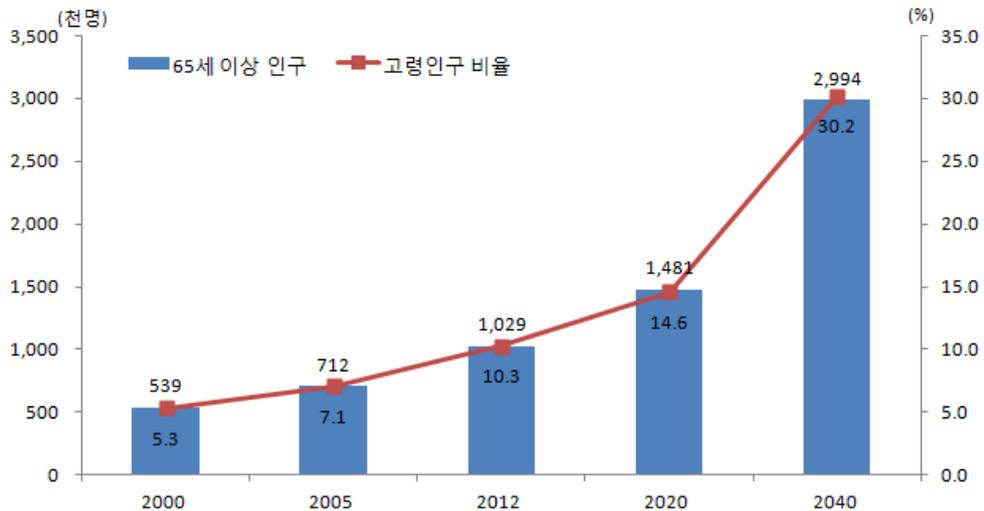
* 본 내용은 서울연구원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서울시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I. 들어가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2012년 기준으로 남자 77세, 여자 84세로 평균수명 80세 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 직장인들은 은퇴 이후 평균 20여년의 시간을 일정한 소득없이 지출을 해야 하는 시기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연령은 55세로 미국 65.8세, 유럽 61.8세 보다 훨씬 빠르다. 정년제도가 있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선 비교적 잘 지켜지지만 일반기업에선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그나마 정년제도가 있는 회사도 평균 퇴직연령에 못 미치고 일단 퇴직을 하면 좋은 일자리를 다시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 서울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3%로 고령화사회이다. 2020년에는 14.6%로 고령사회, 204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전망하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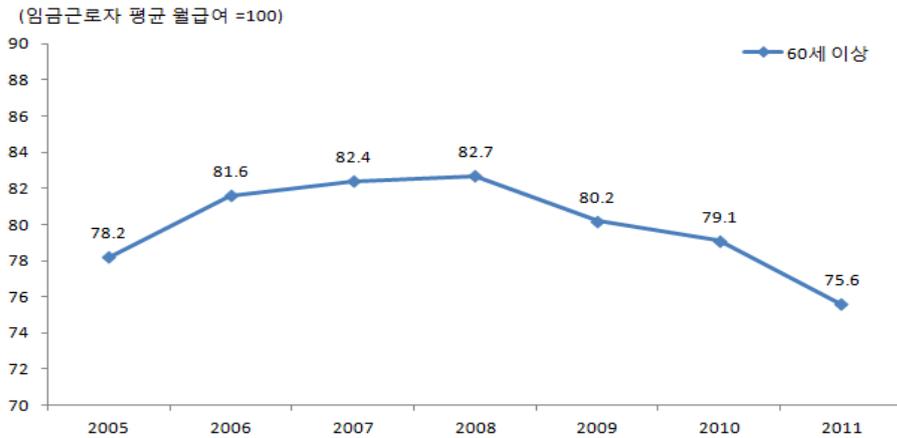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

<그림 1> 서울의 고령인구 추이

1)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 고령사회는 14%이상, 초고령사회는 20%이상을 말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기간이 선진복지국가들은 40~115년에 걸렸던 데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17년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노후대책을 스스로 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지만 내집 마련,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하여 정작 노후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이 있으나 수급률도 낮고 수금액도 적어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분석²⁾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45만 8천원으로 1인 가구기준 최저 생계비 55만원에 못 미친다.³⁾

또한 고령층(55~79세)의 대부분은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⁴⁾ 하지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급여 수준은 임금근로자의 전체 평균 월급여 (=100.0)보다 낮은 수준인 75.6을 나타내며 감소하고 있다. 고령자 대부분이 저임금이거나 비정규직의 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 : 상용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대상. 임금은 월급여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각년도)

<그림 2> 60세 이상 근로자 월급여 수준

불확실한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년기 이전부터 노후대책을 하는 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2011년 전체 베이비붐 758만 2000명 가운데 현재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373만명을 분석한 결과. 10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1168만 3000원을 냈고 월 168만원의 소득액을 신고해 매달 15만 1200원의 보험료를 12개월분을 납부할 경우, 63세부터 받는 수령액
 3)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1인기준(553,354원), 2인기준(942,197원), 3인(1,218,873원), 4인(1,495,550원). 보건복지부 공표
 4) 2012년 고령자통계(통계청), 2012년 현재 고령층(55~79세) 중 향후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59.0%이고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54.4%)'가 가장 높았음

II. 설문조사를 통해 본 노후준비 특성

평균수명이 늘고 소위 말하는 '100세시대'가 다가오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가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노후자금의 적정수준과 노후준비 연령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설문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010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부터 69세까지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내용은 노후준비 여부, 노후자금, 노후준비 연령으로 크게 3개로 구분된다. 첫째, 노후준비 여부와 방법이고 둘째는 노후자금(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노후자금의 적절수준, 노후에 필요한 예상 생활비)이다. 마지막은 노후준비 연령(노후준비 시작 연령, 노후준비 적정한 연령, 경제활동 가능 연령, 노후 거주지 계획)에 대해 설문하였다.

<표 1> 응답가구 일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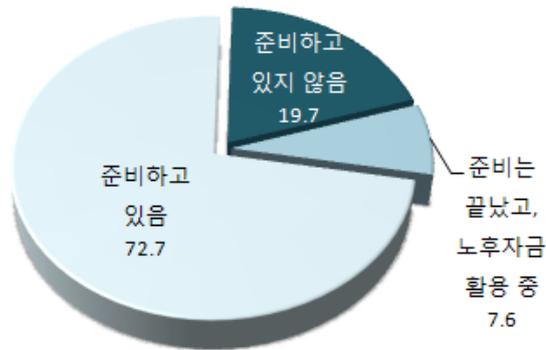
구분	구성 (가구)	비율 (%)	구분	구성 (가구)	비율 (%)
성별			소득수준별		
남자	362	35.8	2000만원 이하	130	12.9
여자	648	64.2	2001~3000	180	17.8
가구주 연령			3001~4000	190	18.8
30대 이하	230	22.8	4001~5000	193	19.1
40대	333	33.0	5001~6000	115	11.4
50대	274	27.1	6001만원 이상	202	20.0
60대	173	17.1			

- 조사시기 : 2012년 7~8월
- 조사방법 :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 응답가구 : 1,010가구
- 설문내용 : 노후준비 여부, 노비준비 방법
 월평균 소득에서 노후자금 준비 비율, 노후자금의 적정수준,
 노후 예상 생활비, 노후준비 시작연령, 노후준비 적정연령,
 경제활동 가능 연령, 노후 거주지 계획

노후준비 여부와 방법에 관해

1. 노후준비 여부 - 소득과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가구 비율이 높음

-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72.7%가 노후준비를 진행 중인 반면 19.7%는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7.6%는 이미 준비가 끝났고 현재 노후자금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림 3> 현재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

-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노후준비를 하는 가구의 비율이 39.2%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절반정도 수준이었다. 또한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가구의 비율도 40.0%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82.1%), 40대(80.8%), 30대 이하(72.2%) 순으로 노후 준비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미 노후를 맞은 60대의 경우에 현재도 노후를 준비하는 가구는 42.8%, 이미 준비는 끝났고 활용하는 가구는 40.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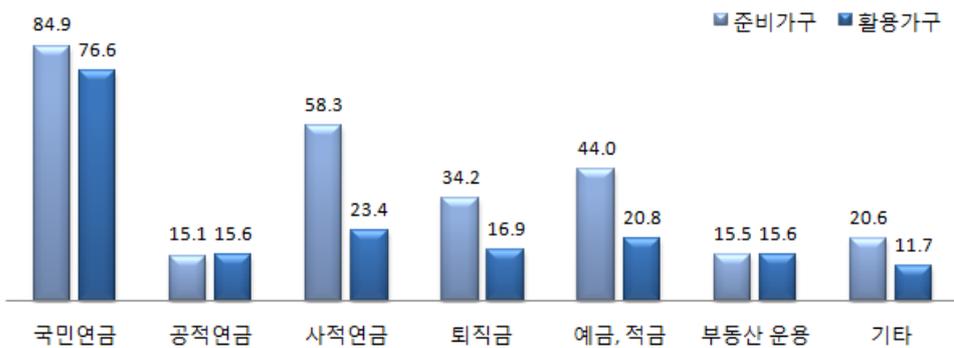
<표 2> 소득·연령별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

(단위: %)

구 분		빈도수	노후를 준비하고 있음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음	준비는 끝났고, 노후자금 활용 중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130	39.2	40.0	20.8
	2,001~3,000만원	180	62.8	27.2	10.0
	3,001~4,000만원	190	73.7	20.5	5.8
	4,001~5,000만원	193	81.9	14.0	4.1
	5,001~6,000만원	115	82.6	15.7	1.7
	6,001만원 이상	202	87.6	6.9	5.4
연령	30대 이하	230	72.2	27.8	0.0
	40대	333	80.8	19.2	0.0
	50대	274	82.1	15.3	2.6
	60대	173	42.8	16.8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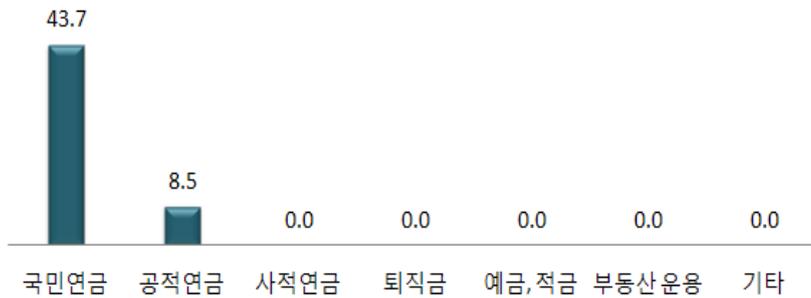
2. 노후준비 수단 -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노후준비 수단으로 생각

→ 노후준비를 하는 가구나 준비를 마쳐 활용하는 가구 모두 국민연금, 사적연금, 예금·적금 순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대다수 가구가 정부의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노후대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더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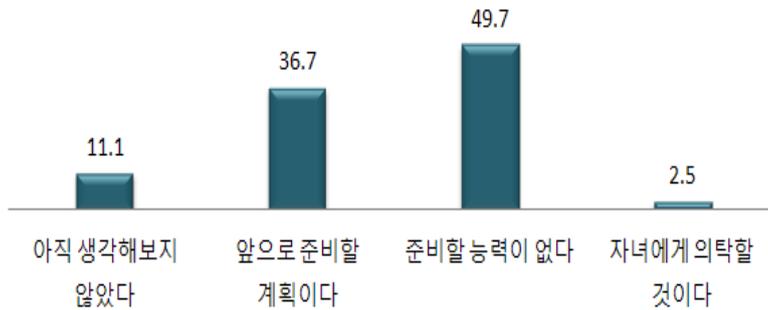


<그림 4> 노후 준비 방법 (노후준비 가구, 활용가구 대상)

-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가구의 43.7%는 국민연금, 8.5%는 공적연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말로 하면 가구의 50%정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 노후준비를 안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조사가구의 49.2%가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준비할 능력이 없다 혹은 자녀에게 의탁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5> 노후 준비 방법(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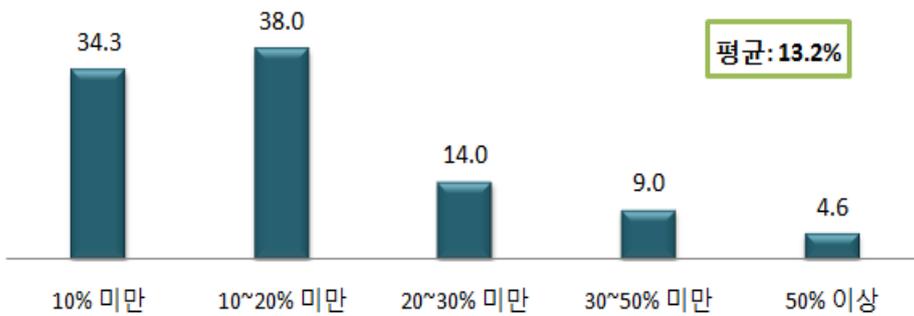


<그림 6>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 이유

노후준비 자금에 관해

1. 노후준비 자금 - 월평균 소득의 13.2% 노후자금으로 준비

→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평균 13.2%를 노후 자금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38.0%가 소득의 10~20%, 34.3%는 10% 미만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림 7> 현재 노후준비 비용이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노후준비 가구)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위해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6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이 16.2%를 노후자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반면 5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평균(13.2%) 이하를 노후자금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의 월평균 노후준비 비용 비율(18.3%)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5~6%p 높았다. 반면 30대 이하의 노후자금 비율은 13.4%로 40~50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는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주거비등 생활소비가 더 많이 노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소득·연령별 노후준비 비용이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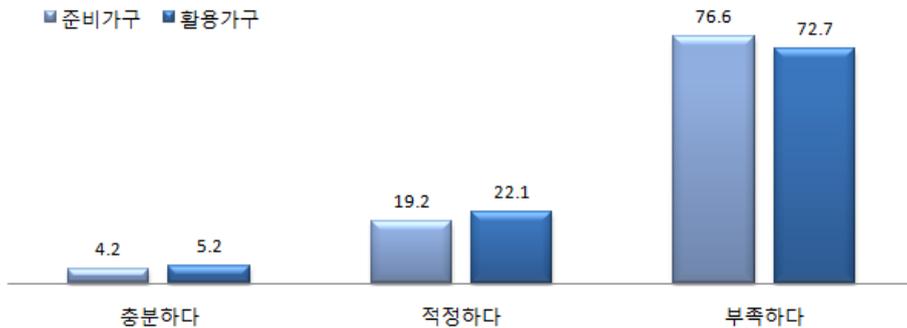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빈도수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50% 미만	50% 이상	평균
소득	2,000만원 이하	51	45.1	35.3	3.9	7.8	7.8	11.7
	2,001~3,000만원	113	46.0	31.9	10.6	8.0	3.5	11.0
	3,001~4,000만원	140	34.3	42.9	11.4	6.4	5.0	12.8
	4,001~5,000만원	158	38.6	34.8	14.6	7.6	4.4	12.3
	5,001~6,000만원	95	33.7	37.9	18.9	6.3	3.2	13.1
	6,001만원 이상	177	20.3	41.8	18.1	14.7	5.1	16.2
연령	30대 이하	166	32.5	39.8	15.1	9.6	3.0	13.4
	40대	269	32.0	41.3	16.4	8.6	1.9	12.7
	50대	225	40.9	35.6	10.2	6.7	6.7	12.0
	60대	74	27.0	29.7	14.9	16.2	12.2	18.3

응답자 : 현재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가구

2. 노후준비 자금의 적정 수준 - 대부분이 노후준비 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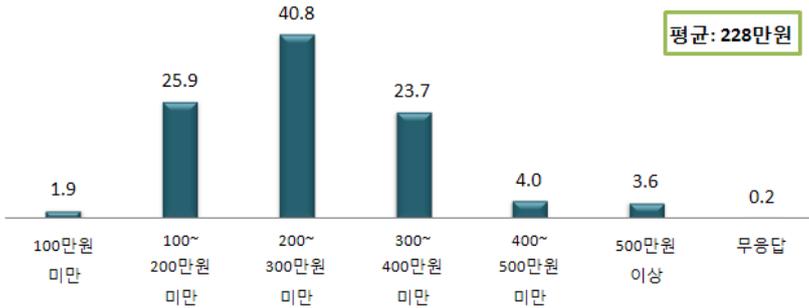
→ 노후준비가구는 76.6%, 활용가구는 72.7%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노후준비 자금이 부족하고 생각하였다. 소득·연령대와 상관없이 노후준비 비용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 노후를 위한 준비비용의 적정 여부

3. 노후에 필요한 예상 생활비 - 월평균 228만원 생활비 필요

→ 조사대상 가구 모두 노후에 월평균 228만원이 생활비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의 40.8%가 200~300만원, 25.9%가 100~2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노후에 필요한 예상 월평균 생활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가구주에서는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월 생활비가 236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에서는 201만원으로 40대와 35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표 4> 소득·연령별 노후에 필요한 예상 월평균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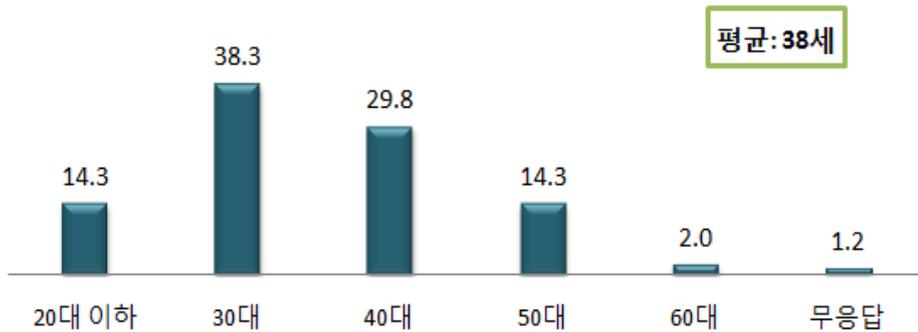
(단위: %, 만원)

구분		빈도 수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무응답	평균
소득	2,000만원 이하	130	7.7	50.0	32.3	6.2	2.3	1.5	0.0	170
	2,001~3,000만원	180	2.8	37.8	40.0	15.0	1.1	3.3	0.0	202
	3,001~4,000만원	190	1.6	33.2	44.7	18.9	1.1	0.5	0.0	205
	4,001~5,000만원	193	0.0	17.6	42.5	33.2	4.1	2.1	0.5	241
	5,001~6,000만원	115	0.0	13.0	45.2	35.7	3.5	2.6	0.0	251
	6,001만원 이상	202	0.5	8.4	39.1	31.2	10.4	9.9	0.5	285
연령	30대 이하	230	1.3	19.6	47.0	25.2	3.0	3.9	0.0	233
	40대	333	2.4	20.4	41.7	27.9	4.8	2.7	0.0	236
	50대	274	1.1	27.7	36.9	24.8	4.7	4.4	0.4	232
	60대	173	2.9	42.2	37.0	11.6	2.3	3.5	0.6	201

노후준비 연령에 관해

1. 노후준비 시작 연령 - 평균 38살에 시작

→ 노후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를 마친 가구는 평균 38세에 노후준비를 하였다. 30대가 38.3%로 가장 많았고 40대 29.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노후준비 시작 연령(노후준비가구, 활용가구)

-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준비 시작시기가 늦어지고 있었다. 특히 다른 소득계층의 노후준비 시작 연령은 36~38세인 반면 2000만원 이하와 2001~3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평균 나이가 각각 44세, 40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대도 마찬가지로 높을수록 노후준비 시작연령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0대 이하의 가구주의 경우 20대(33.1%)보다는 30대(61.4%)에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0대 가구주는 30대(36.4%)에, 50대 가구주는 40대(44.0%)에, 60대 가구주는 50대(38.9%)에 가장 많이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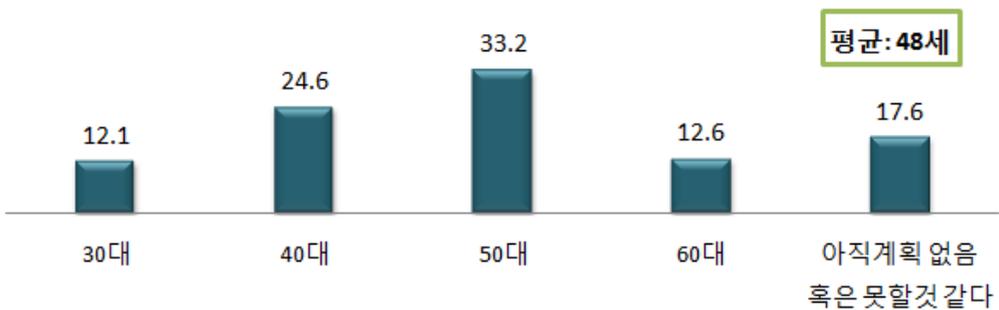
<표 4> 소득·연령별 노후준비 시작 연령

(단위: %, 세)

구분		빈도수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무응답	평균
소득	2,000만원 이하	78	5.1	19.2	30.8	26.9	7.7	10.3	44
	2,001~3,000만원	131	9.9	38.2	25.2	19.1	3.1	4.6	40
	3,001~4,000만원	151	19.2	39.7	28.5	9.3	0.0	3.3	36
	4,001~5,000만원	166	16.3	42.2	30.1	8.4	0.0	3.0	36
	5,001~6,000만원	97	13.4	38.1	32.0	15.5	0.0	1.0	38
	6,001만원 이상	188	16.0	41.5	30.9	10.1	1.1	0.5	37
연령	30대 이하	166	33.1	61.4	0.0	0.0	0.0	5.4	31
	40대	269	14.1	46.8	36.4	0.0	0.0	2.6	36
	50대	232	6.5	23.7	44.0	22.4	0.0	3.4	41
	60대	144	5.6	18.8	27.1	38.9	8.3	1.4	45

응답자 :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혹은 했던)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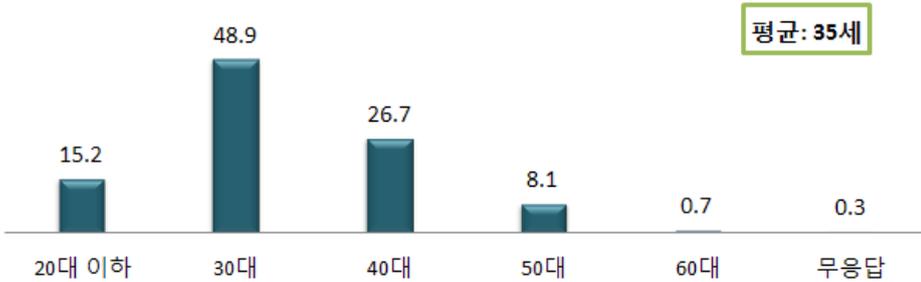
→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가구는 평균 48세에 노후를 준비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앞의 가구에 비해 10년 정도가 늦은 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대에 33.2%, 40대에 24.6% 순으로 나타났고 아직 계획이 없거나 못할 것 같다는 응답이 17.6%나 차지하였다.



<그림 11> 노후준비 시작 연령(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가구)

2. 노후준비 시작의 적정 나이 - 평균 35세 적정

→ 조사대상 가구 모두 평균 35세를 노후준비 시작의 적절한 연령대로 보았다. 30대가 48.9%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6.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노후 준비 시작의 적절한 연령

-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시작의 적절한 연령을 더 빠르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노후준비 시작의 적정 나이를 평균 37세라고 생각한 반면, 6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평균 34세라고 생각하였다.
-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후준비 시작의 적정나이가 높아지고 있었다. 30대 이하는 평균 32세가 적정나이라고 응답한 반면, 50대와 60대는 평균 37세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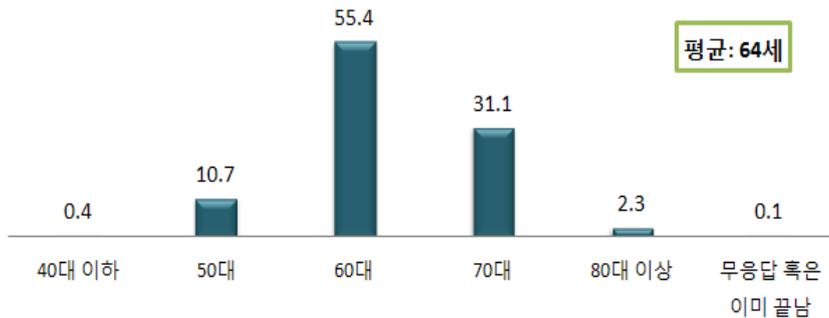
<표 5> 소득·연령별 노후 준비 시작의 적절한 연령

(단위: %, 세)

구분		빈도수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무응답	평균
소득	2,000만원 이하	130	12.3	37.7	36.9	11.5	1.5	0.0	37
	2,001~3,000만원	180	15.0	43.3	26.7	13.9	0.6	0.6	36
	3,001~4,000만원	190	18.9	46.8	25.8	6.8	1.1	0.5	34
	4,001~5,000만원	193	17.6	52.3	22.8	6.2	1.0	0.0	34
	5,001~6,000만원	115	10.4	52.2	30.4	6.1	0.0	0.9	35
	6,001만원 이상	202	14.4	57.9	22.8	5.0	0.0	0.0	34
연령	30대 이하	230	25.2	54.8	17.0	2.6	0.0	0.4	32
	40대	333	15.3	53.2	25.2	5.4	0.6	0.3	34
	50대	274	9.1	43.1	34.3	12.8	0.7	0.0	37
	60대	173	11.6	42.2	30.6	13.3	1.7	0.6	37

3.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 - 평균 64세까지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

- 조사대상 가구 모두 평균 64세까지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응답자의 55.4%가 60대까지, 31.1%는 70대까지라고 생각하였다.
-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수명을 더 길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서는 3001만원을 경계로 그 이하의 소득계층은 경제수명을 66세로 그 이상의 소득계층은 64세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60대는 68세까지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13> 예상하는 경제수명

<표 6> 소득·연령별 예상하는 경제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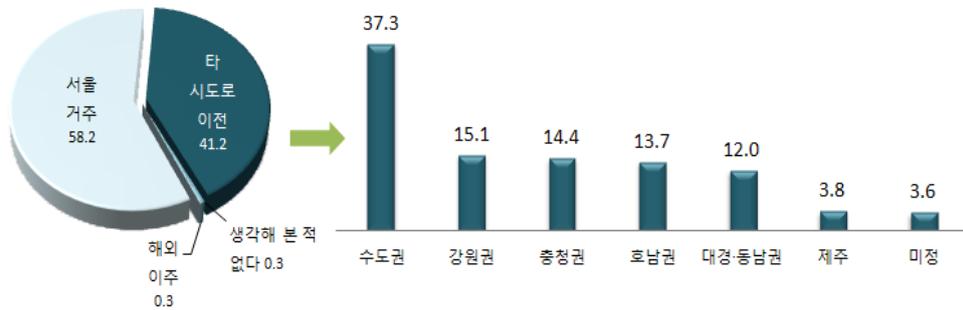
(단위: %, 세)

구분		빈도수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무응답	평균
소득	2,000만원 이하	130	0.8	7.7	50.8	36.9	3.8	0.0	66
	2,001~3,000만원	180	0.6	7.8	47.8	40.6	3.3	0.0	66
	3,001~4,000만원	190	1.1	8.9	56.8	30.5	2.1	0.5	64
	4,001~5,000만원	193	0.0	13.5	58.5	26.4	1.6	0.0	64
	5,001~6,000만원	115	0.0	13.9	57.4	27.0	1.7	0.0	64
	6,001만원 이상	202	0.0	12.4	59.9	26.2	1.5	0.0	64
연령	30대 이하	230	0.9	15.7	58.7	23.5	1.3	0.0	63
	40대	333	0.3	13.8	58.9	24.9	2.1	0.0	64
	50대	274	0.4	6.6	57.3	35.4	0.0	0.4	65
	60대	173	0.0	4.6	41.6	46.2	7.5	0.0	68

4. 노후의 거주지 계획 - 절반은 노후에도 서울 거주, 이주할 경우에는 수도권

→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에도 서울에 거주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서울거주라고 응답한 가구가 58.2%, 타도시로 이전이 41.2% 순으로 조사되었다. 타 시도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수도권’이 3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소득계층이 낮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서울거주를 희망하는 가구 비율이 높았다. 이는 대중교통 등 접근성이 좋고 의료시설이 입지되어 있어서 그런 거 같다. 또한 도심에 일거리가 더 많기 때문에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서울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노후의 거주지 계획

III. 결론 및 시사점

노후준비에 있어서 소득계층별로 양극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2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위의 소득계층에서는 노후준비를 하는 가구의 비율이 39.2%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절반수준이고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0.0%로 가장 높았다. 소득계층별로 표준화된 노후준비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쉽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활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가구는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노후준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월평균 소득의 13.2%를 노후자금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9% 공제되는 금액을 생각하면 노후준비를 여유있게 하지는 못하는 거 같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연령·소득과 상관없이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가장 대표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제정의 고갈, 미흡한 연금수급액 등을 보면 노후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신의 수령액 확인 등을 파악하고 다양한 노후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서비스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별·소득별로 노후설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령층은 동사무소나 직접방문, 중년층은 회사나 인터넷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로를 통해 교육 및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보다 나은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준비시기와 적정시기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에 적정한 시기로 35세로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38세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이는 내집 마련, 자녀교육, 생활비 등으로 노후준비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노후준비 시기가 늦춰지고 있어 현재소비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는 것 같다. 하지만 노후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중년층과 그보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저축이나 개인연금 등 다양한 재무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젊은 시기부터 구체적으로 경제적 노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체 조사가구의 절반이상은 64세까지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평균 정년퇴직연령 55세 비하면 약 10살 정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년퇴직연령을 다 못 채우며 퇴직을 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대부분

아파트 경비, 환경미화 등 비정규직이고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비 은퇴자를 대상으로 무급 교육훈련 휴가 제공, 중고령자 적합 직업 정보 및 진로 상담 등이 진행된다면 보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며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한번은 국민공단의 ‘노후준비 진단 및 노후설계상담서비스’를 통해 걱정 노후소득 준비로 경제적 위험을 해소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사회참여 등 활력 있는 노후생활로 보다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고 실현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통계청(2012), 2012 고령자 통계
- 보건복지부(2012), 고령사회 보원계획(2012)
- <http://kosis.kr/>(국가통계포털)